



# 한울림교회

## 방송설교

KRB

FM 87.7/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주일

6:30AM

단비TV

토 9:00PM/월 11:00AM

Youtube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이들

전도사

권혁용, 김희원, 차유미

은퇴전도사 정주애

목사 김원재

오전 9시  
오전 11시

큐티나눔

교회소식

5월의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파송의말씀

축도\*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 주일예배

박미경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전능왕 오셔서 (찬10)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찬481)

주 안에 기쁨있네 (찬431)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찬214장 4절)

누가복음 1:57-66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야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493)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6월 첫째주부터 **온라인 주보 형식이 바뀝니다.** 핸드폰으로 확인하기 편리한 모바일 형식으로 바뀌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 5월의 공동기도는 **“박미경 선교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일(6/5)은 **성찬주일**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미리 준비한 떡과 잔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6/5)은 **총기폭력 중단 및 총기규제법 제정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6. **큐티책 6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순정).
7. **“확신의삶”** 수업이 주일 오후 1시 지하 소예배실에서, **“생명의삶”** 수업은 주일 2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말씀의삶”** 수업은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 오늘(5/29) 친교 직후 친교실에서 새예배당 입당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친교시간에 헌신할 분들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신청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0.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영상새벽기도회는 Zoom으로 “월~토”에 계속 있습니다.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 321 0608 / PW: 0608
11.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 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총기폭력 중단과 총기규제법 제정을 위한 기도의 날

최근 일련의 총기 난사 사고를 보며 우리 교회도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6/5)을 **“총기폭력 중단과 총기규제법 제정을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는 실효적인 총기규제법이 제정이 되도록, 규제법 제정과 관련된 연방정부, 주정부의 정치인, 행정가들을 위해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14일 뉴욕주 버팔로 한 마트에서 일어난 무차별 총격으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5월 15일에는 남가주 한 교회에서 괴한이 총격을 가해 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총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 주 5월 24일(화)에 텍사스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 무려 21명이 사망했습니다. 무수히 일어난 과거의 총격 사고는 차치하고라도 최근에만 이렇게 인명을 살상하는 총기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 시에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총에 맞아 죽는 일은 거의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저께(5/27) National Rifle Association(전미총기협회, NRA) 연례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는 찬조 연설을 통해 “이런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더욱 무장해야 한다”고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전히 총기 소유에 집착하는 미국 사람들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 밖에 없습니다.

NRA(전미총기협회) 로비자금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총기 규제법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기규제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미국 역사에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당시 불안한 치안 속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민병대를 중심으로 총기 소유와 사용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이런 민병대는 미국 독립 전쟁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미연방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state, 주) 안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은 총기소지 찬성론자들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기 없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실효적인 총기규제법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정헌법 2조가 예전의 산물이며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다는 재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자료에 보면 3억 3천만명인 미국에 민간인 총기 보유수가 3억 9천만 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매일 310명이 총상을 입고, 2만 5천명의 총기 자살을 포함하지만, 매일 100명이 총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자살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 총기 소유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